

투데이 칼럼

최명희의 '혼불' 재조명

최명희 '혼불'은 전북 남원의 몰락해 가는 한 양반가의 며느리 3대 이야기다. 이 소설은 호남 지방의 세시 풍속, 관혼상제, 노래, 음식 등을 생생한 우리 언어로 복원해 냈다.

1930년대 말 남원의 양반촌인 매안 마을에는 이제 문중의 땅을 부치며 살아가는 상민 거렁굴이 공존한다. 매안과 거렁굴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이제 문중의 종부(宗婦) 청암 부인이다.

청암 부인은 신랑 이준의와 혼인한 지 1년 단인 열아홉에 청상이 되었다. 그리고 25세에 남편의 동생 이병의의 장자(長子)인 이기재를 양자로 맞아 홀로 쓰러져 가는 이제 문중을 오 천 섬까지로 일으켜 세운다.

청암 부인은 청상과부가 되었음에도, 아랑곳 않고 실질적 가정이 되어 매안 이씨를 이끌어 가는 여장부의 면모를 보인다. 웃대 대대로 이어지는 불행으로 쓰러져가던 매안 이씨를 새롭게 세우는데 전력을 다한다.

매안 이씨가 사는 원뿔 마을뿐만 아니라 상민 마을 거렁굴까지 다 마실 수 있는 대규모 저수지를 만들었다. 농사만 해도 오 천 석이 넘는 대저수 집안으로 만든다. 여인으로 자신의 '혼불'을 활활 불태운 여인이



정복규

논설위원 · 통일교육원

다. 이기재는 비록 양자이나 청암 부인을 극진히 모시고 아들을 낳아 며느리를 보았으나 가세가 점점 기울어간다. 이기재의 아들 강모는 종가의 장손으로 태어나서 강실이라는 사촌 동생을 마음속으로 좋아한다.

그러나 결국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허효원과 결혼하게 된다. 강모는 강실을 잊지 못하고 허효원은 강모에게 정을 주지 않아 5년이 다 되도록 합방을 하지 못한다.

천성이 유약한 강모는 가문의 대를 잇는 일을 버거워하다 질병을 피해 만주로 떠난다. 이 때 병세가 깊어진 청암 부인은 죽음을 맞는다. 청암 부인의 죽음은 자신의 '혼불' 이다. 한 축복 받은 죽음이었다.

청암 부인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는 대부분 강모의 시점을 통해서 이어진다. 효원과 결혼식 날 왜 그

토록 강실을 그리워했는지, 먼 친척인 죽은 강수의 혼을 결혼시키는 혼례 날, 운통 비워버린 동네, 그들을 타 강실을 강간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그 후 강실의 강모에 대한 사모의 정은 깊어만 간다. 강모는 장손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가까이 하고 싶으나, 가까이할 수 없는 강실에 대한 심리적 갈등 속에서 일본 여인 오유끼를 사랑하게 된다.

오유끼를 돕기 위해 잠시 차용한 공금이 공금 횡령으로 밝혀지고, 그 후 강모는 홀로 만주로 떠난다. 뒤이어 오유끼도 따라간다. 역사학자인 심진학을 따라다니는 강태, 강호가 합세해 만주에서의 생활이 펼쳐진다. 강모에 대한 사모의 정이 깊어짐에 따라 강실이는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간다.

강모가 강실을 강간했다는 소문은 오유끼네의 입을 통해 매안 이씨의 하인들과 상민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상민의 신분을 벗어나고 싶은 욕망으로 불타는 춘복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욕망을 강실을 통해 이루고자 회심의 미소를 띠운다. 상사의 정 때문에 극도로 쇠약한 강실이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흡혈을 하던 날, 역시 자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흡혈 차산에 갔던 춘복이 강실을 만난다.

강실이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기회를 잡은 춘복이 기절한 강실을 데리고 숲 속으로 간다. 깨어난 강실은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춘복이를 받아들인다. 이후 강실이는 임신하게 된다.

임신했다는 소문을 들은 강실의 어머니 오류골 때는 강모의 처 효원이와 의논한다. 서플러 병을 핑계로 먼 곳으로 피접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방물장수에게 부탁한다. 방물장수와 강실이 함께 떠나는 날 춘복이와 내연의 관계에 있던 오구네가 강실을 가로 채, 자신의 집에 숨긴다.

강실이는 오구네 집에 얹혀살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다. 청암 부인의 별세 이후 가문을 지키는 일은 이제 3대 종부인 강모의 아내 허효원의 몫으로 남겨진다.

사설

공정과 정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출마 선언에서 공정·정의 다시 세우기를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기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는 5곳의 대학에서 시간강사나 겸임교수로 재직했다. 그런데 지원서에서 자신의 학력과 경력, 수상 내역 등을 상습적으로 부풀리거나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씨는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국민께서 불편함과 괴로움을 느낄 수 있어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지도 않았다.

윤 후보도 별것 아닌 듯 대응하다가 송구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놨다. 미지못해 사과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대선 후보 부인은 국가 공무를 수행하는 영부인 후보다.

그만큼 엄격한 검증이 요구되는 자리다. 윤 후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 부인 문제는 대충 넘어갈 일이

절대 아니다. 그의 대선 출마 명분은 법치와 상식, 공정의 회복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부인의 허위 이력 건에 대해 "뭘 잘못했다는 거냐."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는 아내의 허위 경력 문서 작성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며 변명했다. 그의 거의 유일한 자산은 정의, 공정의 추상적 가치다.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기본적인 판단 능력이 문제다. 그가 말하는 정의와 공정은 공허한 메아리다. 이는 현 정권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한 일부 강경 보수층의 한풀이 도구일 뿐이다.

구차한 변명 등 얕은 계산은 안 된다.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공정과 정의는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신과 가족에게는 추상 같이 엄격히 하는 것이다.

남에게 추상같이 엄격하고 자신과 가족에게는 한 없이 너그러우면 믿고 따를 사람이 없다.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선언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선수단은 참가하겠지만 정부 대표단은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유린 때문이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통상올림픽 기간에 국가 정상급 인사들은 국민 방문해 회담을 가진다.

그러나 곧바로 뉴질랜드가 보이콧에 동참했다. 영국, 캐나다, 호주 역시 미국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순수하게 정치적 판단이라고 했다.

중국 서북쪽에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있다. 전체 인구의 57퍼센트 가량이 위구르족 등 이슬람 소수민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지역 1천개가 넘는 집단 수용소에서 소수민족 백만여 명이 집단 학살과 강제 노동 등 인권 탄압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반중 세력이 꾸민 거짓 말이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인

권 문제는 중국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올림픽 외교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결연한 반중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경교에만 그치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국이 제인한 비축유 방출, 이란 핵 문제와 러시아 제재에 대한 공조 파기 등이 거론된다.

또 2028년 LA올림픽에 중국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 예상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신병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반대편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올림픽 기간, 중국을 국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정화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미국의 동맹들은 고민이다.

당장 일본 기사다 총리는 미국의 보이콧 결정에 대해 국외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한국은 미-중 두 나라 관계를 모두 잘 관리해야 하는 만큼 선택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스리랑카서 쌍둥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캐럴 예배



19일(현지시간) 스리랑카 콜롬보의 한 교회에서 쌍둥이를 위한 크리스마스 캐럴 예배가 열려 쌍둥이들이 연주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예배에는 50쌍의 쌍둥이가 참석했다.

어린이를 맞이하는 산타클로스



19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의 한 대중교통 회사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열어 크리스마스 주제로 꾸민 트램 앞에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사람이 어린이들을 맞이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